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던 2020년 2월, 중국 당국에서 우한시에 도합 2600 병상에 이르는 두 개의 병원을 각각 열흘 정도 만에 지어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병원들의 이름 역시 화제가 되었다. 휘산산(火神山)병원과 레이선산(雷神山)병원. 중국 언론에서는 불의 신과 우래의 신이 역병을 물리쳐서 산처럼 멈추게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코로나가 손상을 입히는 폐는 장기 가운데 오황 중의 금(金)에 해당하는데 금의 상극은 화(火)이고 우래는 불을 일으키는 목(木)에 해당하니 불과 우래로 코로나를 제압할 병원의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회자되었다.

불과 우래의 만남은 주역(周易)의 서합괘를 연상하게 한다. 서합은 입 안에 있는 물건을 깨물어 씹는다는 뜻이다. 각각의 효에 대한 설명은 형틀을 차고 신체 부위를 상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형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작 서합 괘 자체는 형통하다고 했다. 입 안에 무언가가 있으면 제대로 다물 수가 없어서 틀이 생기므로 씹어서 제거해야 위아래가 합하여 형통함을 얻는다.

김하림의 차이나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11월 14일 미중의 정상회담이 G20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다. 중간 선거에서 선전하던 바이든이나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이나 모두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 둘은 2011년부터 인연을 맺은 10년 지기이지만 둘이 함께 정상 자리에 올라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은 두 정상이 다양한 이슈를 놓고 각자의 우선 사항과 의도에 대해 솔직히 말했다고 보도했다. 무역 마찰과 경제 제재가 주요 의제였지만, 타이완 문제도 중요한 의제였다.

바이든은 미국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타이완) 양쪽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 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에 타이완이 중요 의제로 등장하게 된 도화선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당했다. 이후 미중 간에 격렬한 성명과 경고가 난무했고 중국은 타이완에 미사일과 실탄 사격을 가했다. 펠로시가 다녀간 다음 달인 9월 미 의회는 11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통일 문제는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적 통일을

기고



이영화 비움박물관 관장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 했던가. 한국의 새마을운동(1970년대)이 일어나기 전 농경시대 민속품들을 지난 반백 년 동안 우연히 모아서 비움박물관을 세우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혼자 눈을 짓고 애태우다가 이 글을 쓴다.

그간 갑자기 불어날 문명의 물살에 떠내려 오느라 놓고 온 것들. 부자가 되겠다는 성급함 때문에 전통문화를 시대에 맞게 갈무리하지 못하고 서양문화에 취해 서양 사람을 따라가느라 잠시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현대인들과 함께 박물관 할머니 생각을 나눠 보고자 하시다.

우선 전통문화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의식주, 언어, 풍습, 예술, 제도 등으로, 그 나라가 보존하고 이어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 했다. 지구상의 근원적 가치가 생명 가치, 사회 가치, 경제 가치, 문화 가치라 여기고 한국 전통문화 중에서 언어와 풍습

잘못을 고쳐야 할 때

이 씹어서 제거하는 행위로 형벌을 형상화함으로써 그 유용함을 드러낸 것이다. 서합 괘는 강경함과 온유함을 겸비하여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위아래가 화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다.

서합 괘의 맨 아래 양효는 “형틀을 신어서 발뒤꿈치가 상하니 허물이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지위도 낮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미 형벌을 받은 상황인데 왜 허물이 없다고 했을까? 공자는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허물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징계를 받아들여서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은 형벌로 발을 상하게 하여 큰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을 경계한다면 결과적으로 복이 되니 허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22일 기자회견에서 최우선의 과제로 꼽은 것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되어가는 오늘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고위 공직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이번 참사를 보며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 원인과 상황은 다르지만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여 놓은 국가적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팽목항을 지켰으며, 국무총리 역시 11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

미국·타이완·중국

쟁취하겠지만 결코 무력 행사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무력 행사’라는 단어에 집중한 일부 세력은 머지않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처럼 위험을 과장하고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사실 무력 행사라는 용어는 최소한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할 때부터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2022년에 정책을 새롭게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세력은 향후 4-5년 안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했다. 예전에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는 시점을 대략 중국 건국 100년에 해당하는 2049년, 군 현대화를 완성하는 2035년 등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 혹은 이보다 더 빠른 시점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중국 공산당은 무력 침공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통일을 완성하려고 할 것인가. 예측 가능한 무력을 사용한 통일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적 요인으로 군사력. 중국은 일부 재래식 무기 숫자에서 미국을 앞지르나 종합적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너무 크다. 200km 떨어진 타이완해협을 도하해서 공략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타이완관계법’을 들먹이며 개입할 것이 필연적인데, 이때는 핵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것인가. 둘째, 타이완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민심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대략 20-30% 정도이다. 민의를 거스르면 타이완은 전쟁터가 되고, 무력으로 억누른 통일은 국내에 새로운 강력한 분열 세력의 탄생을 예고할 뿐 통일의 성과는 얻기 힘들 것이다. 셋째, 무력 침공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의 반발과 제재는 더 극심할

복(福)을 짓는 한국 민예품을 만나다

에 대한 예를 들까 한다.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빈 들판에 까치밥을 남겨 두고 울안에 노적봉처럼 인심을 쌓아올리며 겨우살이를 준비했다. 그런 치성으로 조상을 섬기고 정성으로 자식을 키우며 부모 자식 간 도리를 자연의 질서로 일깨웠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정신을 삶의 으뜸으로 삼았던 전통문화의 정신 줄이 오늘의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 줄로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며 특별히 말조심하라 이르고 ‘한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며 말의 소중함을 말로써 가르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며 인과응보 정신까지도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다.

근세기에 강대국의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돼 나라들이 자기 나라 말과 글을 잃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말씨와 모국어를 지켰다. 비록 굶주릴지언정 뒤편 속에 담아둔 씨앗을 소중히 생각했던 만큼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들어서지 않았을까.

그것은 돈이나 이름, 연대, 세평 등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소중함과 씨앗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가 했던 정신에서 연유한다. 박물관에는 그런 전통의 정신이 깃든, 우리 조상들이 손수 만들어낸 민속품들이 전시돼 있다.

그러나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확대

구하고 책임 규명과 진정화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 가운데 정국이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발생 전후의 대응 과정과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이들이 보여준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책보다 수습이 우선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과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읽고 수습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합 괘의 나머지 효들 역시 각각 형벌을 언급했지만 그 결과와 허물이 없고 길하다고 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놓인 양효에 대해서만큼은 “형틀을 매어서 귀가 상하니 흉하다”라 하였다. 형벌이 극에 이르렀는데도 잘못을 고치지 않고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이 스스로 약행을 쌓아가기만 하니 이보다 더 흉한 것이 없다. 사과와 책임 규명을 넘어 더욱 중요한 것은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 나가는 데에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면 이 분노와 슬픔을 과감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할 때다. 반복되는 국민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구태를 답습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어떠한 조치로도 잘못을 고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쫓겨온 영령들의 가시는 길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원한다.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 이상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몰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넷째, 무력 침공은 ‘일대일로’ 정책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둔화된 현재의 경제 성장상을 더욱 나락의 경지로 빠뜨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발전이 저해되고 공산당 일당 지배가 위협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중국 지도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 공세는 강화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을 지칭하는 외부 세력과 타이완의 차입원 정부를 지지하는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와 위협이 주목적일 것임은 자명하다.

오히려 타이완 문제를 적극 야기시킨 것은 미국이다. 미일 동맹을 강화한 2021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세기 만에 타이완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미일 안보의 성격은 ‘지역 안정’에서 ‘대중 동맹’으로 변경했으며, 타이완 문제에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일본의 방위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경제 동맹 벨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 군사적·경제적으로 과잉 대응하기를 유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10월 미 상원은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지원해 타이완이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누군가 재주를 넘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계속 벌 것이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사후에 짜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되면서 부정적인 패배도 급증했다. ‘가난하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되고 부자 나라로 도약했다. 기계문명의 편리함과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말았다.

예컨대 한국인 의식주에 깃든 모든 것, 도시 건물과 공간, 하다 못해 시골 마을 이름까지 서양말로 바꿔치기 하는 현실이다. 학자지결한 대형 축제 마당도 서양 풍 일색이어서 이젠, 때로는 우리가 서양문화 식민지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 했던가. 이미 세계의 지성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는 한류 문화는 한국인만의 유일한 독창성과 창의성, 익살과 해학, 한없이 파스하고 겸손한 한국 전통문화의 선한 영향력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전통문화 속의 언어와 풍습을 미래 세대에게 있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이 아닐까 싶다.

이번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오는 12월 18일까지 비움민속박물관 소장품으로 꾸러지는 전시회 ‘복을 짓다’ 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웃 짓고, 밥 짓고, 집 짓고, 농사짓듯이 평생을 두 손 모아 복을 짓던 한국 전통 민예품을 선보이고 있다. 출산 문화에서 장례 문화까지 옛 한국인들의 치성과 정성의 마음을 모았다.

이번 전시가 현대인들의 가물어진 마음의 샘물이 되고 허물어진 정신의 고향이 되었으면 한다.

社說

5·18 분수대 또다시 정비...이중 투자 아닌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음악 분수’로 재정비된다. 미디어아트 공연을 위한 ‘빛의 분수대’로 탈바꿈한 지 5개월 만이다. 또다시 수십억을 들여 공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중 투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5·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노후한 노즐과 펌프를 교체하고 기계 설비를 추가해 음악 소리에 맞춰 물줄기를 뿜어내는 ‘음악 분수’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세워 광주시로부터 특별 조정 교부금 40억 원을 받았다. 동구는 다음 달 20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분수대에서 지난 6월까지 5개월 정수를 빛으로 승화하기 위한 ‘문화전당 야간경관 기반 조성 사업’이 진행했다는 점이다. 물줄기에 빛을 쏘아 미디어아트를 상영할 수 있도록 조명 등을 설치해

‘빛의 분수대’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4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주변 전경과 불빛 등으로 인해 미디어아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1971년 옛 전남도청 앞 686.75㎡ 부지에 지어진 분수대는 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민주화를 논의하는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열었던 상징적인 공간이다. 누구나 올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민의의 분출구였다. 이처럼 사적지로서 가치가 높은 만큼 원형 보존은 물론 5·18 정신 확산을 위해 신중하게 활용돼야 한다.

불과 5개월여 만에 정비 사업이 다시 실시되는 데 대해 일부에서는 ‘빛의 분수대’의 성과가 부진하자 부랴부랴 새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역사적 의미와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성 있게 추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번만큼은 설계견 미비점이 없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꼭배 수렴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허위 매물 서민 피해 두고 볼 건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허위 매물’이 넘쳐 나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월~9월까지 온라인 허위 매물 의심 사례로 광주시에 통보한 사례는 143건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 지역 각 지구구에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다섯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을 올려 시민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고객이 찾아오면 비싼 매물을 소개하거나 다른 매물을 알선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안산에 살다 이달 초 광주에 직장을 구한 A(55)씨는 “부동산 관계자가 ‘광고가 잘 못돼 오늘 입주가 불가능하다. 비슷한 매물이 있으니 다른 곳을 보여 주겠다’고 매세가 더 비싼 곳을 소개했다”면서 “허위 매물을 걸어 놓고 당일 입주를 해야 하는 급한 사정을 악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중개 대

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제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처분과 단속도 법령 강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수로 깜빡 잊고 광고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관리를 허술히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가 법 집행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되는 이유다. 부동산 허위 매물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인 만큼 엄단을 통해 시장 규율을 엄격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부동산 업계도 자정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달라졌다. 10월 4일은 전후 시대의 깊은 밤이었다. 2차 대전의 갈등이 물러가고 지구의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순진한 희망은 사라졌다. 10월 5일 아침은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알리는 새벽이었다. 이로써 인간이 중력의 사슬을 끊고 지구 대기 밖으로 날아가는 시대가 열렸다.”

마고 리 셰릴은 저서 ‘하든 피겨스’ (동아엠엔비)에서 ‘1957년 10월 4일 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소비에트 연방이 ‘스푸트니크1호’라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은 첫 날이다. 우주 시대의 문을 열어준 우주 시대의 시작을 추스르려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은 98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며 밤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에 큰 충격을 받았다. ‘스푸트니크 쇼크’이다.

이에 미국은 1958년 7월 항공우주국(NASA)을 창설한 후 국가적인 역량을 총집결시켰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하든 피겨스’는 당시의 치열했던 우주개발 경쟁에서 가려진 존재를 부각시킨다. 컴퓨터를 대신해 궤도 등을 손으로 계산했던 흑인 여성 수학자들이다. 1962년 2월 ‘프

랜드십 7호’를 타고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존 글렌은 로켓 발사 전 “그분이 숫자가 맞는다”고 하면 출발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IBM 컴퓨터보다 케서린 G. 존슨의 계산을 신뢰했다.

어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이 발표됐다. 우주 개발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이 신설되고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 탐사를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1960-70년대의 우주 개발이 미·소 경쟁에 치우쳤다면 현재 우주 선진국들은 희귀 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소행성 탐사 등 실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주 개발에 뛰어든 한국 또한 선연에 그치지 않고 실익을 우선시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신항로 개척과 신세계 탐사에 나선 ‘대항해(大航海) 시대’를 우주 공간에서 열어야 한다.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역저 ‘코스모스’에서 묘사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바닷가에서 ‘여전히 발목을 담고도 발가락을 적시는 수준의 미약한 출발’을 하고 있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程厚植</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주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